

2027년 목표 전 지역 광역상수도 확대

대학생들의 특별한 여름 수업

익산시, 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 내년까지 송수관로 5.2km 설치

익산시가 시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체계 전환에 본격 돌입한다.

익산시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7년 시 전역 보급을 목표로 광역상수도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역상수도 전면 확대’는 오염 우려가 있는 노후 정수장을 대체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결정이다.

앞서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입해 △춘포보 집~신흥배수지(지름 800mm, 2.9km) △신흥배수지~금강배수지(지름 600mm, 2.3km) 구간에 송수관로를 설치한다.

이와 관련, 지난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께 사업 발주와 착공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2027년 1월부터는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에 따른 용수 공급 체계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송수관로를 신설하고, 기존 신흥·금강 정수장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익산은 광역상수도(66.2%)와 자체 정수(33.8%)를 병행해 사용 중이나,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용수 공급을 전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게



익산시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7년 시 전역 보급을 목표로 광역상수도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나은정 상하수도사업단장 브리핑.

된다.

시가 자체 운영 중인 금강·신흥정수장은 시설 노후화와 원수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업용 개방형 수로를 원수로 활용하면서 수질 오염 위험이 높아진 점도 광역상수도 전환의 주요 배경이다.

이에 시는 주민 공간대 형성을 위해 그동안 2016년부터 2024년까지 4차례에 걸친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간담회,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 다각도의 공론

화 과정을 거쳤으며, 환경부 수도장비 기본계획 승인(2022년 6월)을 통해 절차적 기반도 마련했다.

나은정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전환 사업을 자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여성농업인 농한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호응’

쌀요리 · 스마트폰 활용 · 농작업 체조반 등 3개 과정... 농한기 맞춤 교육 90여명 참여

여성농업인의 자기 계발 기회 확대 및 건강한 농촌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군산시 2025년 여성농업인 농한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하 ‘센터’)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9월 5일까지 운영된다.

개설과정은 △군산쌀과 보리를 이용한 우리쌀음식만 △스마트폰 활용과 인공지능(AI)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폰활용반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안전성을 위한 농작업체조반까지 3개 과정, 총 28회차로 구성되었다.

현재 관내 여성농업인 9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올해 교육의 경우 단순히 이론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가공실습실, 디지털콘텐츠실을 활용한 이론, 실습

교육이 병행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 세부 일정은 과정마다 다르다. 24명의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우리쌀음식만’은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개관과 함께 선보인 조리가공실습실을 활용해 직접 다양한 군산시 농특산물을 이용한 식품 가공 및 조리 실습을 할 수 있다.

매뉴도 군산에서 재배한 신동진 쌀 가루와 보리를 이용한 전병·떡·김치 찰파프·소고기 가지 술 밥·만능소스 만들기 등 실용적이고 건강한 요리로 구성되었으며, 7월 8일부터 17일까지 4회 운영된다.

‘스마트폰 활용반’은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6회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키오스크 체험, 사회관계망(SNS) 활용, 스마트팜

김은 물론 인공지능(ChatGPT)을 활용한 여가생활 정보 탐색 등 최신 디지털정보화시대에 맞는 기술을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다.

6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8회에 걸쳐 열리는 ‘농작업 체조반’은 ‘찜레꽃 뜰’에 안전을 심어요 라는 주제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안전 체조’를 집중 교육 중이다. 센터는 25명의 참여자와 군산시 생활개선회 K-88 팀을 구성한다.

특히 K-88팀’은 오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원에서 개최되는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한마음대회’ 농작업안전경진대회와 9월에 열리는 ‘군산시농업인한마음대회’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멋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국내 6개 대학 110여명 ‘섬에서 계절학기’ 진행

군산시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등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국내 6개 대학 학생·교수·전문가가 참여한 ‘섬에서 계절학기’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 동안 펼쳐지는 ‘섬에서 계절학기’는 한국섬진흥원(원장 조성환)과 전주대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한동승)이 공동 기획·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와 군산시가 연계 협력하여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에는 전주대, 건국대, 계원예대, 중앙대, 계명대, 호원대 등 6개 대학의 실감미디어학과 재학생 80명과 교수 및 전문가 30명 등 총 110여 명이 함께 했으며, 고군산군도를 담은 가상현실(VR)·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활용을 주제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은 모두 선유도에 상주하면서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탐색하며 대학생 시각의 ‘창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교육의 대미를 장식하는 4일에는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서 성과 발표회(쇼케이스)를 열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6개월간 전시를 진행한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우호도시 돈다바야시시와 교류 재개

익산시가 일본 우호 도시인 돈다바야시시와의 역사 문화 교류를 재개하며 백제왕도 익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나섰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2일 일본 오사키의 돈다바야시 시청을 방문해 요시무라 요시미 시장과 환담을 갖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도시는 백제문화와 아스카문화라는 역사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상호 대표단 파견, 학술행사 및 지역축제 교류를 지속해왔다.

이번 방문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코로너9 이후 중단됐던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시장은 “돈다바

야시시는 백제촌, 하백제 등 지명이 남아 있을 만큼 백제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아스카문화의 중심지”라며 “익산 또한 백제 무왕의 도읍지로서 두 도시 간 역사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문화교류를 복원하고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요시무라 시장은 “아스카시대 돈다바야시와 백제시대 익산이 교류했던 인연처럼, 오늘날 양 도시도 문화와 인적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지니아마치’로 알려진 돈다바야시의 중요전통건축물군 보존지구를 함께 둘러보며, 익산의 금마 백제왕궁 일원에 추진 중인 중진 백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정책 공유와 관광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3중계펌프장 악취 해소 위한 적극행정

익산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평화동 3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평화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중계펌프장 악취 저감시설을 전면 보완하고, 밀폐화 및 환경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9월께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제기되자,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악취 과다 투입으로 인해 배출구에서 복합악취가 다소 높게 발생해 주민 불편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익산시는 환경 전문가를 영입해 악취저감시설의 악취 투입 공정을 전면 개선하고,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4차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와 함께 펌프장 시설의 밀폐화 공사를 실시, 내·외부 환경을 정비해 악취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차단했다.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폭염 대비 도심지 간선도로 살수차 운영

군산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예년보다 일찍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폭염특보 발령 시점이 예년보다 앞당겨지면서 예년보다 앞당겨 7월 초부터 살수 작업을 본격 진행한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효율적인 살수를 위해 시는 지역을 2개 권역(동군산/서군산)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2대씩 총 4대의 살수차를 배치하기로 했다.

살수차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도로 주변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오전 10시~ 오후 5시 하루 3~5회 집중적으로 살수를 실시한다.

이원실 건설과장은 “폭염 기간 동안 살수차 운영 횟수를 조정,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치매 가족 자조 모임 ‘어울림’ 운영

익산시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가족 자조모임 ‘어울림’을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했다.

이번 모임은 치매 환자 가족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돌봄에 대한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고 정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치매 골든벨’, ‘우리 이렇게 해봐요’, ‘나 참 잘했어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치매 관련 영상도 함께 시청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핸드벨 연주, 노래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해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목공 수업 등에 참여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조모임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